



## 관광학 연구를 위한 현상학적 접근들\*

### 이론적 토대부터 연구 도구까지

Phenomenological approaches for tourism research: From theoretical foundation to research tool

김 소 혜\*\* · 이 훈\*\*\*

Kim, Sohye · Lee, Hoon

**요약:** 현상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이 용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많다. 우선 현상학은 질적 접근에서 연구 수행의 바탕이 되는 포괄적 연구관을 가리킨다. 그러나 보다 광의적으로 철학의 한 사조 혹은 철학적 담론 속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며, 미시적으로는 특정 연구 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다양한 현상학적 접근들을 관광학 연구자들에게 다가가기 쉽도록 소개하고, 중국에는 관광 경험과 관련된 질적 연구에서 폭넓은 적용 범주를 지닌 현상학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는 것에 있다. 본문에서는 질적 연구의 세계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널리 알려진 철학적 현상학의 두 흐름(Husserl, Heidegger)을 간략하게 논한 후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두 가지 연구 방법(Giorgi, van Manen)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 최근 관광학에서 Giorgi의 현상학적 접근을 활용한 사례와 van Manen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관광 경험을 고찰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전자의 경우 현상학은 연구 도구로 한정되지만 후자에서는 연구자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음을 예시하였다. 이후 현상학이 관광학의 학문적 탐색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갖춘 현상학의 적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현상학은 철학적 토대, 연구관, 분석 방법 등 각 차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에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현상학적 지향점을 맞추는 시도는 관광학에서 깊이 있는 질적 연구 수행을 돕는다.

**핵심용어:** 현상학, 연구 패러다임, 철학적 현상학, 밴 머넌, 지오르지, 질적 연구

*ABSTRACT:* Phenomenology is employed extensively, giving rise to a multitude of divergent interpretations.

Received August 21, 2023   Revised September 09, 2023   Accepted September 13, 2023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40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C2A02093406).

\*\*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연구교수. skim188@hanyang.ac.kr

Research Professor, Tourism Research Institute, Hanyang University.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hoon2@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Copyright** ©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CC BY,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of the work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authors and source are properly cited.

*Phenomenology serves as the foundational perspective underpinning all qualitative approaches, a kind of philosophy, and a specific research method. This study aims to present phenomenology in an accessible manner to tourism researchers, and in turn, to enhance its appeal for research concerning tourism experiences. The article initiates by situating phenomenology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qualitative research paradigms. Afterwards, two widely known streams of philosophical phenomenology, Husserlian and Heideggerian, were introduced, followed by an exploration of two research methodologies by Giorgi and van Manen who applied philosophical phenomenology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ithin the realm of social sciences. The versatility of phenomenology becomes evident through its diverse applications. Finally, to exemplify the achievement of coherence across the main parts of a research paper, we delved into two recent tourism studies that each employed either Giorgi's or van Manen's methodological approach. In the first study, phenomenology mainly served as a analytical tool, while in the second, it constituted the fundamental framework shaping the researcher's perspective. Improving cohesion in research papers empowers researchers to engage in profound qualitative inquiries. The discourse also emphasizes how doing a phenomenological research in practice coul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scholarly advancement in the field of tourism.*

**Key words :** Phenomenology, Research paradigm, Philosophical phenomenology, van Manen, Giorgi, Qualitative research

## I. 서 론

승무원 A씨는 작년 이맘때 독일을 방문했다. 업무를 마무리하고 베를린에서 3일간 머물게 되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베를린을 방문하게 되었다. 3일간 작년과 동일한 호텔에서 자고, 이전에 왔던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으며, 관광을 위해 방문한 곳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이제야 '진정한 베를린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새롭게 받았다.

왜 A는 반복적인 여행 맥락을 제공하는 두 번째 방문 시점에서 베를린을 새롭게 느끼고 진정성을 이야기할까? 만약 A가 체험 속 무언가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관광 현상을 고찰하는 연구자들은 그 '무언가'에 대한 규명을 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현상학의 적용을 통해 관광학 연구자들이 '무언가'에 접근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현상학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상학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성질을 지닌다(Laverty, 2003). 현상학은 철학적 사조의 일종이기도 하며 철학적 현상학에 토대를 둔 연구자의 세계관, 경험된 의식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기도 한다(Hughes & Sharrock, 1997). 여기서 연구자의 세계관은 연구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현상학적 접근이 기초한 패러다임은 Husserl, Merleau-Ponty, Heidegger, Gadamer 중 어떤 철학자의 논의를 중심으로 적용하는지에 따라 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 해석주의, 구성주의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Racher & Robinson, 2003). 그러나 보다 실용적인 수준에서 현상학은 연구 방법론의 맥락에서 질적 접근의 한 방식이나 자료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이나 전략을 의미하기도 한다(Rodriguez & Smith, 2018).

현상학의 다차원성은 위와 같은 용어 활용에 대한 개념적 범주화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여가 및 관광학에서 수행된 탐색의 결과물에서도 확인된다. 초기 이론가인 Cohen (1979)은 현상학을 방법론이나 분석 도구 맥락에서 사용하지 않고 관광객 경험을

이분화하여 접근하는 기존 관점에 대한 대안적 연구 관으로 적용하였다. Mannell and Iso-Ahola (1987)의 경우, 실증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의식 차원에서 여가 경험 그 자체에 접근하는 심리학적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현상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현상학을 대안적 관점으로 부각시키는데, 생태학과 현상학을 결합하여 여가 현상을 조망하는 Dashper and Brymer (2019)가 그러한 예이다. 또한 활용 방식에서 방법론이나 분석 방법으로 현상학에 접근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Fratila and Berdychevsky (2021)는 Husserl의 초월적 현상학에 기초하여 Moustakas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반면, Allaby and Shannon (2020)이나 Shim and Santos (2014) 등은 철학적 토대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 도구에 한정하여 van Manen의 방법이나 Giorgi의 방법을 적용하여 관광 경험에 접근하였다. 이렇게 관광학 내부에서 방법론 혹은 분석 방법으로서 현상학적 탐색의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학적 연구를 표방한 논문에서 정작 현상학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거나, 연구 수행을 위한 절차적 형식만 강조하거나, 분석을 위한 기법의 활용에 한정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에 연구자의 연구관과 활용된 현상학적 접근 방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Pernecky & Jamal, 2010; Szarycz, 2009).

분석에 활용하는 연구 방법과 연구자의 연구관이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상학의 철학적 배경 및 이와 관련된 방법론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선결 요건이 된다. 만약 이러한 다층성 및 복합성을 이해하지 않고 현상학을 모두 뭉뚱그려 하나의 질적 분석 기법으로 단순화한다면 연구관, 연구 도구, 방법론의 바탕이 되는 철학의 지향점이 일관적이지 않게 되며, 이는 연구 대상이 되는 관광 경험에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여 두 가지 목적에서 현상학에 접근한다. 첫째, 관광학에서 현상학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하도록 현상학을 소개한다. 둘째, 현상학이 궁극적으로 관광학의 학문적 성숙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접근 방식임을 설명한다.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 연구 수행 시 고려해야 할 현상학의 논의 범주를 간결하게 제시하고 (b)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의 관점과 현상학의 활용방식 간 일관성이 높은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패러다임의 기본 틀 (2) 철학적 현상학의 대표적인 두 흐름 (3) 주요 현상학적 연구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 (4) 각각의 방법을 적용하여 관광 경험을 탐색한 실제 연구 사례에서 현상학적 관점이 얼마나 일관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현상학적 탐색의 필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II. 일원주의와 다원주의

### 1. 일원주의와 실증주의

관광은 관광객, 관광 산업의 공급자, 정부, 지역 공동체, 환경 등 관광 활동과 관련된 주체 및 현상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McIntosh et al., 1995). 이 중 경제적 관점을 통한 관광의 접근은 초기 관광과 관광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도에서 두드러졌다. Tucker and Sundberg (1988)는 관광을 하나의 생산 과정, 동질적인 생산품, 지역에 제한된 시장이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은 아닌 것으로 정리한다. 또한 Ryan (1991)은 관광학을 집에서 멀리 머무는 이들을 위한 숙박시설 및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소비, 수입 창출, 고용에 따른 결과의 유형을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내린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수치화된 통화의 흐름이 관광 현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정된다(Smith, 1988).

위와 같이 통화라는 양적 특질을 일원화하여 관광 현상을 조망하기 위해 객관화되고 보편화된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연구자의 실증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다. 실증주의(positivism)는 관찰의 주체(예. 연구자)와 관찰의 대상(예. 연구 대상)이 서로 독립적이고 분리된 실재임을 전제로 한다(Cleminson, 1990). 즉 연구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연구 대상은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관찰은 관찰자의 선입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Walle, 1997). 이러한 과학적 연구에서 객관적 탐색은 관찰, 측정, 실험 집단 간 비교라는 방식을 활용한다(Wilson, 1990).

비단 관광의 개념화와 같은 거시적 탐구 분야에 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나 경험과 같은 미시적 현상 연구에서도 실증주의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마음은 물리적 대상처럼 관찰하거나 조작할 수 있을 때 연구 대상이 되며, 조건에 맞춰 측정된 결과는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인간의 주관적 반응(예. 개인의 감정, 생각, 가치, 느낌 등)일지라도 대상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분명하게 내릴 수 있다면 돈, 무게, 길이와 마찬가지로 정량화된다고 본다. 즉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통해 연구 현상의 핵심 속성은 정량적 수치에 기반하여 확인되며, 정의된 대상의 정량적 측정은 인간의 심리 및 경험 연구에서의 객관성을 보증한다는 것이다(Stanovich, 2012).

## 2. 다원주의

그러나 객관성과 절대성은 지식 생성을 위한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비판이 과학 공동체 내에서 제기되었다. Kuhn (1962)은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자연과학에서 지식의 발전은 진화가 아닌 혁명적 구조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Kuhn (1962)에 따르면, 패러다임이란 특정 시대의 과학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믿음, 가치, 이론 및 이론을 규명하는 기술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과학 공동체가 이미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패러다임이 존재할 경우, 이 지배적 관점과 다른 연구 결과 및 이론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증거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기존 패러다임은 신뢰를 잃고 변칙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이후 새로운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paradigm shift, Kuhn, 1962). Carr and Kemmis (1986)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야말로 과학적 지식은 본질적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맥락적인 가치를 반영한 산물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동체의 가치에 따라 지식의 수용, 배척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연과학 안에서 제시된 패러다임은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활용되어 연구자의 세계관의 다원성을 정교하게 논의하는 데 공헌하였다<sup>1)</sup>. 특히 앞에서 이미 소개된 실증주의는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을 모방하여 자연과학적 접근 방식을 그대로 인간의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데 활용되었다. 실증주의를 활용하는 경우, 자연과학의 절차를 따라 객관성과 보

1)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구분된 패러다임의 범주는 이론가들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된다(Guba & Lincoln, 1981; Jennings, 2001; Schwandt, 1994). 이 논문에서는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해석주의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다원성에 접근한다. 두 가지 이유로 이러한 논의의 폭을 선정하였다. 첫째, 비판이론,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구성주의는 한 데로 묶이거나(Stears, 2006), 구성주의의 한 갈래로 접근될 수 있다(Geelan, 1997). 둘째, 이 논문의 초점은 패러다임의 다양한 갈래를 소개하는 것에 있지 않고 패러다임의 다원성을 고려하여 현상학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편성을 추구하고, 사회현상 속에서 인과에 따른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Hughes & Sharrock, 1997).<sup>2)</sup> 그러나 연구 대상을 맥락에서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요소로 축소 가능하다는 인식론적 가정은 실증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사회과학 연구의 실패를 필연적으로 불러왔다(Smith, 1983). 이러한 환원적 접근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같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을 묵과할 때나 가능하기 때문이다(Shapiro, 1994).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지식이 구성됨을 강조하는 현시대는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대안적 관점들이 나타났다. 우선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는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대안적 시도이나, 실증주의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 관점에서는 근대과학의 엄밀성과 과학적 논리를 적용하여 철학적이고 해석적인 지식을 탐구하는데(Racher & Robinson, 2003), 이는 가치와 규범이 반영된 사회과학 이론을 엄밀성을 지닌 근대과학적 방식을 통해 논증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olf, 1999). 그러나 과학적 절차를 따르는 연구 방식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맥락성과 주관성을 중시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기실증주의는 실증주의와 구별된다(Denzin & Lincoln, 2018).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등 전통적인 기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주관성에 대한 질적 접근이 가능한 후기실증주의가 폭넓게 활용되었다(Hasan, 2016; Stedman et al., 2016).

구성주의(constructivism)와 해석주의(interpretivism)는 후기실증주의보다 방대하고 급진적인 전환을 보이는 대안적인 관점이다<sup>3)</sup>. 이 관점에서는 이전과 달

리 객관적인 진리(objective truth), 경험적 실재(empirical realism)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객관적 지식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Schwandt, 1994). 실재는 의지를 지닌 인간이 어떠한 방식과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지에 따라 변화하며, 따라서 인간의 주관성 개입을 차단해버린 실험과 물리적 도구가 아닌 언어와 상징체계를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chwandt, 1994). 실재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산물이기에, 생성된 지식의 가치 또한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 된다(Kukla, 2000).

연구자의 존재론적 지향점을 반영하여 현상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sup>4)</sup>. 다원주의적 활용이 현상학의 범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다음 장에서는 현상학의 철학적 전통과 이를 응용하여 제시된 연구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 III. 현상학적 방법론의 이론적 토대와 활용

현상학적 접근은 사회과학 연구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탐구 방식이 아니며, 철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현상학의 창시자인 Husserl에게 현상학은 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을 일컬으며, 현상학을 통해 인간의 주관적 의식을 핵심 화두로 제시하였다(Husserl, 1997). 이후 그의 제자인 Heidegger나 해석학의 Gadamer나 몸의 현상학의 Merleau-Ponty 처럼 Husserl의 초월적 현상학과 결을 달리하는 이들도 자신의 연구 방식을 현상학적이라고 지칭하는데,

2) 실증주의가 19세기 초에 사회과학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국면을 통해 설명되고 발전되어 왔다(Crotty, 2003). 그러나 논의의 발전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여기에서는 실증주의의 특성을 간단히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서술 수준은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일반적으로 유지된다.

3) 여기서는 Guba and Lincoln (1981)을 따라 해석주의와 구성주의를 보통 상호교차적으로 사용하였다. Guba and Lincoln (1981)은 자연주의(naturalistic), 구성주의(constructivism)를 해석주의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

4)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적이고 반성적 행위로 다양한 패러다임이 나타났으나, 따라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실증주의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포함하여 논의된다.

이들의 사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상학적 방법이 제안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Dostal, 2021; Gallagher, 2005). 덧붙여서 현상학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범주는 현상학의 개념뿐만 아니라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포함한다. 현상학은 의식에 대한 탐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을 일컫는다(Schacht, 1972). 이러한 다의성은 현상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관광 경험을 탐색할 시에 연구의 수행은 연구자가 기초한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토대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현상학을 방법론으로 활용할 때 주목해야 할 철학적 현상학의 갈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이어서 관련된 방법론을 살펴 보도록 한다.<sup>5)</sup>

## 1. 현상학의 철학적 전통<sup>6)</sup>

현상학이 주관성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의 발생 배경에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다. 현상학은 19세기 말에 철학과 심리학에서 지배적이었던 과학적 실증주의에 대한 반작용에 따라 태어났다(Patton, 2020). 보다 구체적으로, Descartes적 이원론을 거부하는 움직임임을 의미한다(Hammond et al., 1991). 이 관점에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대상의 존재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인식론적인 전제하에 의식과 물질, 마음과 신체 상호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경험의 주관성은 주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

는데,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주관성을 통해서 대상이 지닌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Berger & Luckmann, 1966).

반면 Husserl (1997)은 위와 같은 이원론에 기반한 인간 경험의 탐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는지는 대상의 절대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 작용 과정을 거쳐 주관적으로 대상화된(Berger & Luckmann, 1966). 따라서 여기에서는 과학적 실증주의에서처럼 인간의 행동을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과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파편화하여 접근하기를 거부하고, 현상 그 자체로의 복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Patton, 2020).

익숙한 맥락에서부터 Husserl의 철학에 접근하기 위해 이 논문의 첫머리에 등장한 베를린 여행을 예로 들어보자. A는 여행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 이미지, 그리고 여행지로서의 베를린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그 무언가에 따라 베를린을 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A의 의식과 대상이 되었던 베를린은 분리된 다기보다는 A의 의식 속에서 체험되는 현상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를 가리켜 우리의 의식이 대상에 '지향'되었다고 말한다. 이 내용을 현상학적 개념으로 정리하자면 지향성(intentionality)은 인간에게 경험은 항상 무언가에 대한 것, 즉 대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eyer, 2018).

한편 A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베를린 여행의 의미를 달리 부여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 반복적인 관광 경험일지라도, 체험(lived experience)은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

5) 기초 사회과학의 전통에서 제시된 현상학적 방법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현상학적 철학에 집중하여 다양한 체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이남인, 2014).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현상학적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공통의 토대를 위해 현상학에 접근하기에, 심리적 체험 고찰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중심으로 현상학적 접근이 논의되었다.

6) 이 연구에서 다루는 철학적 관점은 Husserl과 Heidegger에 한정한다. 이러한 한정된 접근은 현상학에 대한 방대하고 복잡한 논의를 단순화하고 축소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실증적이고 실천적 영역에서 인간 경험에 접근하는 학문 분야에서 이 두 철학자는 현상학적 접근법을 구분하는 주요 차원이다(Matua & van der Wal, 2015) 적용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 어떤 패러다임에 기초하는지 파악하는 주요 축으로 기능한다(Neubauer et al., 2019). 국외 관광학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현상학적 방법론을 소개한 Pernecky and Jamal (2010) 또한 한정하여 현상학의 철학적 토대를 서술한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도 Husserl과 Heidegger에 집중하여 철학적 배경을 간명하게 언급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은 베를린을 여행한 특정 시점, 장소, 맥락, A의 몸이 경험하는 방식 등에 따라 끊임없이 다르게 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베를린 여행에 대한 지각은 A의 의식 안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경험이지만, 여행에 대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편적이다. 따라서 베를린 여행 경험의 전체성, 체험의 본질은 이러한 유한적인 지각의 경계를 넘어서기에 '초월적'이라고 할 수 있다.

Husserl의 경우 현상학적 연구 목적은 체험의 본질인 그 무엇을 주체적으로 의식하는 것, 즉 초월적 주체성을 성취하는 것이다(Valle et al., 1989). 즉 개별 지각의 작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탐색의 초점을 맞춘다(Jansen, 2005). Husserl은 현상 그 자체로 돌아가기 위해 자연주의적, 관습적, 습관적 태도를 통한 대상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이 필요하다고 보았다(Beyer, 2018). 그리고 자아가 지닌 습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관습적인 판단을 유보할 때 초월적 환원(transcendental reduction)이 가능하다고 보았다(Schmitt, 1959).

그러나 이러한 Husserl의 초기 현상학 연구(Husserl, 1900/1970, 1913/1982)에서 제시된 대상과 의식을 분리한다는 초월적 환원은 해석학과 실존주의 현상학자들의 비판을 낳았다. 특히 인간은 본질적으로 세계 내 존재(being-in-the-world)임을 강조하는 Heidegger의 경우, 자아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괄호치기(bracketing)가 필수인 Husserl의 초월적 주체성을 탐색하기를 거부한다(McCall, 1983). 관찰하는 현상의 본질은 관찰자와 함께 이 세계에 '존재'하기에 현상의 본질 규명 과정에서 관찰자는

소거될 수 없으며, 설사 소거가 가능하더라도 소거로 인해 오히려 본질과 멀어지기 때문이다(Langdridge, 2007). 따라서 Heidegger는 세상 속 존재의 의미에 집중하고 이에 대해 생각하는 행위가 현상학적 탐색임을 강조한다(Smith et al., 2009).

Husserl과 Heidegger는 경험 연구 수행을 위해 현상학적 방법론으로 제안하는 연구자들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Husserl에 기초하는 경우, 기술적 현상학 혹은 초월적(transcendental) 현상학으로 불린다(Laverty, 2003). 초월성에 대한 강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연구자는 개인적 의견이나 편견으로부터 얻은 판단을 유보하여 연구하는 현상에 접근해야 한다. 지식은 연구 대상인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서술'(description)을 통해 얻게 된다(Smith et al., 2009). Heidegger에 기초하는 경우, 해석적(interpretive) 현상학 혹은 해석학적(hermeneutic) 현상학으로 불린다(Laverty, 2003).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관점에서는 연구자 또한 세계 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과 편견을 유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식은 개인적 경험의 서술을 '해석'(interpretation)하는 것으로부터 얻는다(Cohen & Omery, 1994).

Patton (2020)은 질적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두 철학자에 기반하여 철학적 현상학의 차이점들을 정리하였다(〈표 1〉). 철학적이고 전통적인 현상학에서 나타나는 관점 차는 이후에 소개되는 Giorgi (1985)와 van Manen (1990)이 제시한 질적 연구를 위한 현상학적 방법론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Giorgi의 경우 Husserl과 현상학적 환원을 중심으로 자신의 연구 방법을 발전시켰다. van Manen의 경우 Husserl뿐만 아니라 여러 철학자들의 탐색에 기초하였으나, Husserl보다는 Heidegger에 보다 중점을 두고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sup>8)</sup>.

7)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현상학의 철학적 전통을 소개할 때 철학자들의 논의가 단순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남인, 2014). 후기 연구에서 초월론적 주관은 '삶의 세계'(lifeworld)라는 개념을 통해 세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주관으로 재해석된다(Husserl, 1954/1970).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 논의 발전은 이 논문의 탐색 범주를 벗어나기에, 여기에서는 대안적으로 'Husserl (1913/1982)의 초기 현상학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Heidegger와의 비교가 Husserl의 초기 저작 중 일부에 기초하였음을 나타내었다.

〈표 1〉 Husserl 현상학과 Heidegger 현상학의 주요 차이점들

철학자	Husserl	Heidegger
현상학적 유산	토대를 세운 설립자	근본적인 계승자
초점	의식(consciousness)	존재(being)
연구 철학	인식론적	존재론적
답변을 찾는 근본적인 질문	인간으로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존재란 무엇인가?
전통	서술적(descriptive), 초월적(transcendental), 섞이지 않은 순수한(pure)	해석적(interpretive), 해석학적(hermeneutical)
지식 생성 방법	괄호치기[bracketing]. 괄호치기는 진정한 지식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	해석하기(interpreting). 이전에 연구자가 지닌 지식을 통한 해석은 무엇이 진짜인지를 이해하는 것을 도움
주요 인용구 <sup>9)</sup>	“만약 조금이라도 직관에 의해 영감을 받게 된다면, 멀리, 혼란스럽고, 진실하지 않은 직관들로만 영감을 받게 된 의미들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야만 한다”	“모든 질문하기는 일종의 찾기이다. 모든 찾기는 찾게 되는 것으로부터 미리 방향을 안내받는다. 질문하기는 존재자들의 통성(通性)과 본질에서 존재자를 인식하는 탐색이다”

주: Patton (2020)을 참고하여 재구성.

## 2. 경험 연구를 위한 현상학적 방법론:

### Giorgi와 van Manen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하나의 절대적인 방법이 존재하기보다는 연구 주제의 본질, 자료의 수집 방식, 연구의 목적, 연구자가 소유한 기술 등에 맞춰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Hein & Austin, 2001). 이 절에서는 관광학의 현상학적 체험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Giorgi (1985)와 최근 주목받는 van Manen (1990)의 연구 방법을 살펴본다.

### 1) Giorgi (1985)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

심리학자인 Giorgi (1985)는 인문과학으로서의 심리학 방법론을 수립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경험 그 자체에 대한 정확한 서술을 할 수 있도록 Husserl (1913/1982)의 현상학과 심리학을 접목하였다. 구체적으로,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은 Husserl (1900/1970)의 phenomenological psychology를 토대로 실증 연구에서 의식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Giorgi, 2006).

8) 주의할 것은 현상학적 방법을 제시한 방법론 전문가들은 van Manen과 Giorgi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리학자인 Colaizzi, Polkinghorne, van Kaam 등이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간호학, 심리학 등의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어왔다. 더군다나 국내 관광학계에서는 Colaizzi를 적용한 사례가 최근에도 나타난다(예. 한석호, 윤지환, 2020).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연구 방법을 발전시키는 경우만을 논의의 범주로 한정하면서 그들의 연구 방법을 포함하지 않는다. van Manen (1990, 1991, 1997, 2017)과 Giorgi (1970, 1985, 1992, 2006)와 달리 위의 심리학자들은 연구 방법으로서 현상학을 제안한 이후 자신들의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는 추가적인 시도가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적 현상학이 실증주의부터 구성주의까지 다양한 패러다임을 통해 해석 가능하기에(Racher & Robinson, 2003), 제시된 방법이 방법론적 지향점과 결을 같이하는 지를 비판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분석을 위해 제시된 절차의 일부가 방법론적 토대와 일관적이지 않는 경우(예. Colaizzi), 해당 분석 방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제 자료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기 힘들다. 관광학과 같이 방법의 적용에 중점을 둔 응용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한계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9) “Meanings inspired only by remote, confused, inauthentic intuitions-if by any intuitions at all-are not enough: we must go back to the ‘things themselves’” (Husserl, 1900/1970, p. 168).  
 “Every questioning is a seeking. Every seeking takes its direction beforehand from what is sought. Questioning is a knowing search for beings in their thatness and whatness” (Heidegger, 1953/1996, p. 3).

Giorgi (1985)의 현상학적 접근은 4가지 측면에서 양적 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서술적이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특정 설명이나 미성숙한 분석 틀을 적용하는 대신 반드시 서술적으로 연구 대상에 접근해야 한다(Giorgi, 1985, p. 48). 이는 자료에 대한 해석과 분석은 연구자가 지닌 특정 이론적 관점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구체적이고 사심 없는 기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을 강조한다. Giorgi (1985)는 의식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그것이 나타난 그 대로가 의미하는 바와 함께 정확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옳다는 판단하에 자신의 관점을 확인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본질에 대한 탐구를 추구한다. 특정 현상에서의 변치 않는 특징들을 탐색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Giorgi, 1985, p. 50). 마지막으로, 지향성(intentionality)을 강조한다. Giorgi (1985)의 연구 대상이 되는 의식은 지향적 의식 행위에 한정하는데, 이는 의식으

로 떠오르는 모든 표면적인 활동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무언가'에 대한 의식을 탐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네 가지 특징은 Giorgi (1985)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personal experience)의 해석이 아닌 인간 경험(human experience)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추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그는 Husserl (1913/1982)과 마찬가지로 실증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식의 토대로 본다<sup>10)</sup>. 이러한 Husserl의 실증주의적 관점을 질적 연구 방법론에 적용한 덕분에 Giorgi (1985)의 접근은 의식의 과학 혹은 경험 과학을 표방하는 심리학의 학제적 근간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즉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해석적 접근이 아닌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관점(descriptive scientific perspective)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Giorgi, 1992)<sup>11)</sup>.

개별 경험이 아닌 인간 경험에 대한 강조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자들에게 타인의 경험에 대한 엄정한 분석을 요구한다. 실제로 Giorgi

10) "[P]henomenology is not anti-empirical, but it relativizes the empirical rather than making it the absolute basis of knowledge." (Giorgi, 2006, p. 46).

11) 이 논문에서는 Giorgi (1985)를 Husserl의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후기실증주의적 접근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구분은 Giorgi (1984, 2006)에 근거하였음을 밝힌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의 위치에 대해서는 방법론 전문가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기존 선입관을 차단하여[bracketing] 어떤 대상에 대한 의식 작용에 접근하는 현상학적 환원을 강조하는 철학적 전통이 과연 개별적이고 주관적 체험에 집중하는 질적 연구와 근본적 지향점이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 Crotty (1996)는 철학적 현상학을 토대로 체험연구를 위해 제안된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들을 신현상학(new phenomenology)으로 명명하고, 이것은 철학적이고 전통적인 현상학과 다름을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질적 연구 발전과 함께 제안된 현상학적 방법은 미국 현상학(American phenomenology)으로 구분된다. 미국 현상학은 개발된 질적 연구 방법(론)이 실용주의, 상징적 상호주의,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도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기에, 철학에서 의도한 진정한 현상학적 환원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된다(Caelli, 2000). 미국 현상학에서 질적 연구를 위해 제안된 현상학적 방법은 기술적이되 주관적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연구 목적은 현상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객관적 실재성(reality)에 대한 현상학적 탐구보다는 개인의 경험의 실재성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Crotty, 1996). Paley (1998)의 경우, 이렇게 객관화된 체험을 기술적이며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Husserl도 Heidegger의 전통도 따르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Husserl의 현상학적 환원을 보다 엄밀하게 적용하고 '과학적' 현상학을 제시한 Giorgi의 경우에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 철학적 현상학을 잘못 이해하거나 임의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Husserl의 철학에 정초하였다는 Giorgi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예: Paley, 2018). 그러나 하나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이 철학적 현상학에 근간을 두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에서의 논의 범주를 벗어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체험 연구의 실천과 철학적 토대의 충실한 반영에 대한 비판이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음을 한계로 밝힌다.

(1985)는 연구자 자신의 경험보다는 인터뷰나 글을 통해 얻은 타인의 경험을 주요 연구 자료로 권장하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 활동을 4단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즉 연구자는 (1) 진술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를 읽어보고(reading), (2) 심리학적 관점에서 의미 단위를 분별하고(discriminating), (3) 참여자의 일상적인 표현을 심리학적 언어로 변환하며(transforming), (4) 변환된 의미 단위를 해당 현상의 구조 속에서 일관적인 서술어로 통합해야(synthesizing) 한다는 것이다.

단계적 자료 분석을 마친 연구자는 진술문, 공통적인 테마, 일반적인 구조적 기술을 얻는다. 참여자를 위해 작성된 진술문들을 활용하여 진술문 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를 도출하고, 이러한 공통적인 주제를 토대로 일반적인 구조적인 서술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반적이고 구조적인 서술이 연구의 최종 결과물이 되며, 일반적인 질술문은 연구하는 현상의 본질 구조 파악을 통해 나타난 가장 일반적인 현상의 의미를 드러낸다(Hein & Austin, 2001).

## 2) van Manen (1990)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

진술한 Giorgi (1985)와 달리, van Manen (1990)은 독일의 인간 과학 교육학(human science pedagogy)의 영역에 현상학을 적용하였다<sup>12)</sup>. 또한 해석학적 현상학을 주로 적용하면서 텍스트의 해석과 이해를 강조하는데, Heidegger 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양

한 관점의 현상학과 해석학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해석학적 현상학을 논한다<sup>13)</sup>. 해석학적 현상학에서는 연구자가 텍스트를 통해 전달되는 인간 경험에 대해 해석하고, 연구 결과에서 현상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Hein & Austin, 2001). 따라서 van Manen (1990)은 자신의 방법이 교육학뿐만 아니라 체험(lived experience)을 연구하는 현상학과 해석학적 탐구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van Manen (1990)의 또 다른 특성은 연구자에게 총체적이고 시적으로 현상에 접근할 것을 독려한다는 점이다(Green et al., 2021). 이는 van Manen (1990)의 방법은 연구자가 필요시에 현상에 대한 기술이 아닌 시적인 언어를 활용하여 보다 섬세한 묘사를 하는 것에 허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이 경험에 대한 객관적 사실보다는 인간 경험에 대한 통찰력 제공에 있다고 보는 van Manen (1990)은 자신의 방법이 수학 공식처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로 여겨지기보다는 각 연구의 맥락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자료 수집과 분석 절차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보다는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접근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연구는 연구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로 시작된다. 연구자 자신이 주체가 되었던 경험에 대한 반성은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이후 체험의 의미를 확실히 하고자 타인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체험의 본질적 의미에 도달할

12) van Manen (1990)은 서문에서 이러한 학문적 배경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13) 이러한 그의 접근 방식은 철학자들의 인용 경향성에서도 확인된다. van Manen (2001)은 현상학적 환원이 판단중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재를 직접 마주하는 작업도 포함한다고 보며, 단순한 선입견의 제거보다는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가설이나 이론적 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보다 중요시한다. 따라서 van Manen (1990)은 Husserl을 Heidegger, Merleau-Ponty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용하고, 나아가서 Gadamer, Dilthey, Derrida 등 해체주의와 해석학의 철학자의 논의를 풍부하게 활용한다. 따라서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van Manen을 Heidegger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일환으로 소개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철학적 정초(定礎) 논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사회과학 영역에서 방법론적 현상학을 논할 때, 해석학적 현상학은 Heidegger를 근간으로 접근되고 있다(Patton, 2020). 관광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에 속하기에 이 논문에서도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적 현상학과 해석적 현상학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소개하였다.

수 있다. 수집되는 자료는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관찰이나 인터뷰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 소설, 연극, 전기, 일기와 같은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경험적 묘사도 가능하다. 현상학적 자료의 적합성은 자료의 형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면 어떠한 형식의 자료도 활용될 수 있다.

분석 단계에 대한 설명에서도 van Manen (1990)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분석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주제들(theme) 혹은 경험의 경험적 구조(experiential structures of experience, van Manen, 1990, p. 79)를 밝혀내기 위한 주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van Manen (1991)은 서술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해석도 현상학적 탐색의 핵심 요소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서술을 강조하는 Giorgi (1985)와 구별된다.

또한 체험의 본질에 대한 주제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전체론적인 접근과 선택적 접근, 그리고 세밀한 접근을 다각도로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van Manen, 1990). 즉 연구자는 부분에서 전체로, 그리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선적으로 순환하면서 연구 자료를 탐색하게 된다. 이는 텍스트의 어느 부분이 체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떠오른 주제가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접근하며, 개별 문장 등의 세부 자료에서 현상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세세하게 조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van Manen (1990)에게 분석의 마지막인 글쓰기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부차적 활동이 아니다. 그에게 글쓰기란 현상학적 연구 수행의 본질이자 핵심으로, 연구 대상이었던 사태가 어떠한 본질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다는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취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글쓰기는 의미의 생생한 구조를 이해하기를 돕고 현상의 의미를 명백히 드러내는 데 맞춰져야 한다. 실제

로 van Manen (1991)은 일화(anecdotes)를 명확하고 간명한 예시로 글 전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일화를 통한 현상의 접근은 독자의 통찰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사전 지식과 습관적 사고를 토대로 사태를 단순히 분류하지는 않았는지를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태에 대한 글쓰기가 부분적인 차원이나 전체적인 차원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부분과 전체 간 균형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Giorgi (1985)와 van Manen (1990)의 특징은 <표 2>에 요약되었다.

#### IV. 관광학에서 현상학적 연구하기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패러다임, 철학적 현상학의 갈래, 사회과학 영역에서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에 따라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방식과 해석의 범주는 다양하다. 이 장에서는 질적 연구의 수행 시 일관성을 높이는 방식을 연구 방법(론)적 차원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가 적용한 현상학적 방법(론)이 연구 패러다임, 고려하는 철학적 현상학의 범주, 연구의 발견에 대한 서술 수준이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관성에 접근하였다.

사례 분석에 활용될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 선별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우선 관광학 분야의 KCI 등재지에서 최근 2년간(2021~2022) 게재된 체험 연구 중 현상학을 단일 연구방법(론)으로 선택한 논문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된 논문 중에서 Giorgi 혹은 van Manen을 적용하였음을 명시한 논문을 선별하였다. 선별 결과 10편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이 논문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의 범주를 어디까지 적용하였는지(항목 A), 적용한 방법(론)적 절차 및 특성을 자신의 연구 맥락에서 명확히 소개

〈표 2〉 Giorgi와 van Manen의 현상학적 방법 비교

	Giorgi	van Manen
분류	(경험적) 현상학적 심리학	해석학적 현상학
이론적 토대	심리학, 철학적 현상학 (전기 Husserl의 연구를 중심으로 활용)	교육학, 철학적 현상학 (현상학과 해석학을 유연하게 활용)
적용 목적	인간 경험에 대한 정확한 서술	인간 경험에 대한 통찰력 제공
결과	일반적인 구조적 서술 (조사된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반영)	현상에 대한 의미를 명백히 드러내는 글쓰기와 의미의 생생한 구조를 이해하기
자료로서 연구자의 자아 (self)가 포함되는 방식	연구 초기에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가능.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는 타인(참여자)의 경험을 활용)	연구의 시작점 (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소설, 시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도 연구에 활용 가능)
자료 수집과 분석 수행 절차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상세하게 연구 수행 과정을 안내  1. 전체 자료 읽기 2. 의미 단위로 서술을 나누기 3. 의미 단위를 변형하기 4. 현상의 본질적 구조 확인하기(identifying)-상황적 구조 진술 5. 자료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현상의 본질적 구조에 통합하기-일반적 구조 진술	연구 수행 시 따라야 할 방법 전략을 구체적 수준에서 제시하지 않음  1. 체험의 본질로 관심을 환기하기 2.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경험을 조사하기 3. 현상을 특성화하는 본질적인 주제에 대해 반성하기 4. 글쓰기와 다듬기를 통해 현상을 묘사하기 5.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유지하기 6. 부분과 전체를 모두 고려하면서 연구 맥락의 균형 맞추기
실증적 성향	일종의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과학	귀납적이고 실증적으로 유도되지 않음
주요 접근 방식	심리학적 접근	문학적이고 시적인 접근

하는지(항목 B, 항목 C), 연구자가 목표하였던 현상학의 활용 범주와 실제 적용 범주의 일치성을 보이는지(항목 D)를 검토하였다(〈표 3〉 참조). 관광학에서 단순한 분석기법에 한정하여 현상학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Pernecky & Jamal, 2010; Szarycz, 2009)을 고려하여 항목 A를 통해 4개의 연구를 제하였다. 나머지 6편의 논문은 항목 B, C, D와 관련된 정보를 본문에서 제공하였으나, 적용방식과 연구자의 수행 수준의 일치성을 다양하게 확인하고자 게재 저널, 적용 방법론, 저자 등이 겹치는 경우를 제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으로 김진용 (2021)과 이보미 (2021)가 선정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의 일관성을 높였는지를 원고의 각 장에 대한 구성 및 서술 방식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1. 분석 도구(Giorgi)로써 현상학의 활용:  
김진용 (2021)**

김진용 (2021)은 관광의 영역에서 소비자의 권리 침해 현상이 주로 정책시행자의 관점에서 연구되었음을 문제시한다. 권리침해는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개인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개인의 주체적 경험 속에서 통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김진용 (2021)은 현상에 대한 본질적 의미에 집중하고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경험의 구조를 기술할 것을 강조하는 Giorgi (1985)의 적용이 연구 현상에 대한 탐색에 적합한 것으로 소개한다. 동시에 구체적인 적용의 범위를 한정하는데, “본 연구의 자료분석기법으로는 Giorgi (1985)의 기술적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에서 제시된 연구기법이 적용되었다”(김진용, 2021, p. 192)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연구에서 Giorgi (1985)가 적용

〈표 3〉 Giorgi/van Manen를 활용한 최근 관광 연구

발행 연도	학술지명	논문 제목	적용 방법(론)	분석 대상 선정 기준*				최종 선정 (저자명)
				A	B	C	D	
2021	관광레저연구	전통시장 주체자의 경험인식을 바탕으로 한 전통시장 관광목적지 활성화 전략 연구		방법	o	o		
	관광연구논총	관광소비자의 권리침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Giorgi	방법론	o	o	o	o 김진용
	관광학연구	음식점 점주의 모바일 배달 앱 이용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	o	o	o	
	관광학연구	전통시장의 관광목적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	o	o		
	관광학연구	현상학적 관점에서 농인들의 여가 체험	van Manen	방법론, 이론(철학)	o	o	o	o 이보미
2022	관광학연구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승무원의 직무불안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Giorgi	방법		o		
	호텔리조트연구	팜파티 활성화를 위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	o			
	관광학연구	시각장애인의 관광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	o	o	o	
	관광학연구	현상학적 관점에서 습관적 여가 행동의 의미	van Manen	방법론, 이론(철학)	o	o	o	
	관광학연구	관광지에서의 지역주민 현장 경험과 삶의 질에 대한 이해		방법론	o	o	o	

주: A: 현상학이 적용된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B: 적용 방법이 제시한 방법론적 절차를 실제 자료 분석에 반영하고 있는가?  
 C: 적용된 방법(론)이 실제 연구 맥락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D: 연구자가 목적했던 현상학의 활용 범주와 실제 적용 범위는 일치하는가?

되는 범주는 질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임을 본문에 명확히 표현한다.

분석 도구로써 Giorgi (1985)를 활용한다는 사실은 김진용 (2021)의 원고 전반에 걸쳐 확인된다. 2장 이론적 고찰에서 연구자는 지향성, 현상학적 환원, 본질직관, 간주관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철학적 현상학과 Husserl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연구자의 설명에는 Giorgi (1985)가 지향성, 현상학적 환원, 본질직관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현상학적 환원을 자신의 연구 맥락에서 수행할지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에서 Giorgi의 소개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제시했던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학문장으로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만다.

3장의 연구설계 중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은 이 연구가 Giorgi (1985)를 어떠한 수준에서 적용하는

지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총체적 의미 파악-의미 단위 구별-학문적 용어로 변환-상황적 구조 진술-일반적 구조 진술’이라는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며 분석 도구로써 활용 방식을 독자에게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연구 분석 도구로 한정했기에 그 밖에 연구설계 부분은 연구의 수준을 결정하는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자신의 질적 연구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설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면서, 연구자는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나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적용한다. 이 네 가지 판단기준은 사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보편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지, 질적 연구에만 적용되는 배타적 평가 기준이 아니다(Guba & Lincoln, 1981). 그러나 김진용 (2021)은 Giorgi (1985)의 이론적이고 개념적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연구 도구로서 한정적으로 활용하였기에 이러한 접근 방식은 원고 전체의 어조를 흐리지 않는다.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은 Husserl의 철학적 가정을 현상학적 실증적(empirical) 연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의 적용을 거부하나 심리학적 연구의 실증적 본질을 부정하지 않는다(Giorgi, 200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편적 연구 가치를 중심으로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김진용 (2021)의 접근 방식은 연구 방법의 허용 범위를 넘지 않는다.

4장의 분석 결과는 Giorgi (1985)의 제안을 따라 연구의 발견점을 충실하게 기술하고자 ‘의미의 구성’, ‘상황적 구조 진술’, ‘일반적 구조 진술’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Giorgi (1970)에 따르면 엄정성은 그의 방법에서 추구해야 할 현상학적 탐색의 기본 자세다. 심리학적 현상학에서 탐색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식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찰하고, 통찰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Kruger, 1988). 이는 경험된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기보다는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드러내기를 연구자에게 요청한다(Giorgi, 1970). 또한 상황적 구조 진술은 특정 상황 속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며 일반적 구조 진술은 구체적인 상황 너머 일반적 수준에서 현상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진술로 구성되어야 한다(Giorgi, 1970). 김진용 (2021)은 이러한 초점을 정확히 반영하여 상황적 구조와 일반적 구조를 명백하게 나누어 체계적으로 연구 결과를 서술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물론 관광학에서도 김진용 (2021) 외에 Giorgi (1985)를 분석도구로 활용한 사례가 종종 발견되나, 수행 과정에서 그의 제안을 임의로 해석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상황적 구조 진술과 일반적 구조 진술에 차이를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항목에서 기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발견들 속 서술에서 이 둘을 섞어버리거나, 상황적 구조 진술을 결과 제시 항목으로 고려

하지 않거나, 상황적 구조에 대해 진술하면서 일반적 구조라고 지칭하는 등의 시도가 확인된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분석을 강조한 Giorgi의 방법을 적용하면서 방법론적 엄격성을 흐리는 점은 연구의 일관성을 낮춘다.

결론 부분의 구성 또한 김진용 (2021)의 후기실증주의적 관점을 반영한다. 이 장은 연구 결과의 정리, 실무적 시사점, 이론 발전에 대한 기여, 한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상학적 방법의 활용과 관련된 논의를 발전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질적 연구 방법의 한가지로 단순화하여 접근하는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한계점 중 하나로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자를 도구로 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계량적 연구에 비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분석절차,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적용함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서술한다(김진용, 2021, p. 205). 이러한 김진용 (2021)의 논의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질적 연구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Giorgi(1992)를 지지한다.

종합하자면, 김진용 (2021)의 연구는 후기실증주의적 관점에서 Giorgi (1985)를 질적 자료의 분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이 연구관은 Giorgi의 활용 방식, 철학적 현상학을 소개한 범주,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등 논문의 전반에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 2. 연구관을 정립하는 사고 체계(Husserl)와 분석 도구(van Manen)로써 현상학의 활용: 이보미 (2021)

이보미 (2021)의 경우 현상학의 적용은 도구적 사용을 넘어선다. 앞에서 언급한 김진용 (2021)과 달리, 이 논문에서 현상학은 연구의 시작과 끝을 아우른다. 즉 연구자의 세계관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

도구까지 다면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면서 논지의 부분과 전체는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저자의 시도 속에서 Husserl의 철학적 현상학은 논문의 일관성을 높이는 핵심축으로 작용한다.

현상학적 통찰의 확장적 적용은 서론의 논조에서부터 나타난다. 저자는 Husserl의 지향성을 여가 체험의 본질적 구조에 접근하는 핵심축으로 집어넣고, 자신의 연구 대상이 신체화된 의식이 본질적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가 되는 농인들의 여가 체험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현상학이 방법론으로서만 머물고 있는 여가학에서 현상학적 여가학이라는 새로운 융합학문의 이론을 다지고자 한다”라고 연구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표현한다(이보미, 2021, p. 79). 즉 연구의 초입부터 연구자에게는 현상학이 근본적으로 사유 체계이며, 따라서 연구 방법론의 활용은 부차적 관심거리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철학적 탐구 과정을 통해 여가에 대한 학문으로서 핵심적인 가치를 고찰하려는 서론의 태도는 2장 문헌 고찰의 이야기 전개 방식에도 재확인된다. 연구자는 선행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여가 체험의 접근 방식이 실증주의적 환원이었으며, 이는 체험의 차원을 단순화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문제시한다. 즉 관광학과 여가학에서 실증주의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의 활용은 체험(lived experience)을 측정 가능한 정량적 속성에 한정해버린다는 근본적 한계점을 비판한다.

따라서 이보미 (2021)는 여가 체험을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 여가의 본질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 탐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본질적 현상학적 탐색의 영역으로 농민들의 여가 체험을 제시하는데, 연구 대상의 선정은 현상학의 지향성을 통해 설명하면서 연구 전체의 믿음성(trustworthiness)

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구체적으로 농인들이 지닌 신체적 제약은 오히려 여가의 영역에서는 신체가 의식의 주체가 되어 그들이 세계 및 대상과의 관계를 맺는 지향성을 뚜렷이 드러낸다는 것이다<sup>14)</sup>.

3장의 현상학을 연구 도구로 한정하지 않고 연구의 전반적 세계관 정립까지 적용하는 저자의 시도가 부각된다. 즉 Husserl을 토대로 van Manen의 제안을 유연하게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관광 경험에 대한 기존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농인의 체험을 맞닥뜨린다는 점에서 van Manen의 현상학적 환원을 접근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보미 (2021)가 철학적 차원에서 Husserl을 통해 관광 현상에 대한 탐색의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경험이라는 현상을 실제 세계에서 접근하기 위해 van Manen을 실천적 도구로 활용했음을 의미한다.

해석주의적 현상학은 통상 Husserl의 초월적 현상학보다는 Heidegger의 실존적 요소를 강조하기에, 이보미 (2021)가 van Manen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현상학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의견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van Manen은 특정 철학자에 기초한 현상학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해석주의적 태도를 강조하나 현상학적 환원을 부정하지 않는다(van Manen, 2001). van Manen (1990)에는 기술(description)은 기술적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과 해석학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그의 기술이 특정 관점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van Manen, 2017). 이와 함께 van Manen (1990)이 엄격한 자료 분석 절차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다양한 현상학적 통찰의 연구에 유연하게 활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임을 고려한다면, 이보미 (2021)의 응용 방식

14) 신체화된 주체는 논의, 특히 언어로 매개되지 않는 경험의 고유한 의미에 대한 철학적 담론은 Husserl 이후 Merleau-Ponty가 제안한 지각의 현상학에 기초한다(박신화, 2012). 그러나 저자가 밝혔듯이 이 논문은 철학적 이론 논문이 아닌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일종으로, 농인들의 여가 체험을 기술한 응용 연구이다(이보미, 2021, p. 85). 따라서 여기에서는 신체-주체 담론의 철학적 원류의 명확한 확인보다는, 이보미 (2021)가 Husserl의 현상학 속 주체 담론의 연속으로 신체에 접근한 것으로 신체화된 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한다.

은 방법론적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3장에서는 현상학적 환원과 자유변경을 농인들의 여가 체험에 적용하고, 신체화된 주체적 경험을 농인의 여가 체험 맥락에서 설명하고, 농인들과의 인터뷰와 함께 영화, 도서 등의 소스를 수집 자료로 활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 범주의 적용 범위 확인 및 확장적 자료 수집은 van Manen (1990)이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 실천 방식과 일치한다.

4장에서 분석 결과는 연구자가 강조했던 주요 철학적 요소를 반영하여 서술되었다. 즉 농인들의 생활 속 여가 체험은 ‘객체에서 주체로’, ‘신체화된 의식’, ‘신체-주체적 자유’라는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가 체험의 본질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의 전개는 연구자가 의미 단위 확인 후 개별 주제를 떠올리고 그 이후 일반 주제에 접근한다는 일반적인 내용 분석을 따르지 않고 연구자가 현상학적 틀을 재구성해 적용하였음을 나타낸다.

결말의 핵심 주제는 복합적이고 현상적으로 서술된다. ‘신체화된 의식’을 예로 들자면, 청각의 상실로 인해 쉽게 세계 및 타인과 단절되고 소외되어 홀로 존재하는 농인들은 주로 농인들끼리 여가를 체험한다. 이러한 체험 맥락 속에서 농인은 자신에게 부재한 음성 언어를 모방하여 세계와 관계 맺기를 선택하지 않고, 신체의 움직임들 통해 세계와 깊은 관계를 맺는 주체적인 체험을 한다. 농인들은 문자와 음성에 기반한 사유활동이 아닌 움직이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신체적 언어인 그들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의식의 지향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보미 (2021)의 여가의 본질에 대한 접근은 자연스러운 일상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여가 활동을 대상으로 어떻게 본질적 현상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예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여가 현상의 본질 규명 수준까지 끌어올려 현상학적 관점을 적용

하였으며, 이를 위해 여가 체험이 지닌 지향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여가 체험이 존재하도록 하는 그 무엇을 다각도로 풀어내고 있다. 그러나 여가 체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저자는 보편자로서의 본질에 닿을 수 있는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종합하자면, 이보미 (2021)의 연구는 방대한 철학적 담론을 관광학이라는 응용사회과학의 맥락에 적용하면서 현상학을 다층적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Husserl의 초월적 현상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여가 현상에 접근하며, 실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van Manen을 도구로 사용한다. 이는 van Manen의 방법론적 관점을 따라 해석학적인 연구 범위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현상학적 환원과 본질 직관에 대한 탐색을 연구의 중심에 둔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여가 경험의 본질은 기존 환원주의적 관점이 아닌 그 현상 그대로 관광학의 공동체 안에 떠올리는 것이 가능하였다.

## V. 현상학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

이 논문을 현상학적 연구 설계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차원을 논의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세계관이다. 후기실증주의부터 구성주의/해석주의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관광 체험의 주관성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철학적 현상학적 전통이다. 이 논문에서는 Husserl과 Heidegger를 현상학적 갈래에 이해하기 위한 보편적 토대로 소개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를 위해 개발되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상학적 방법(론)들이다. Giorgi (1985)와 van Manen (1990)이 제시되었다.

관광학에서 질적 연구 시 현상학적 접근을 고려할 때, 세 번째 차원에 우선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만약 통계적 분석 방법과 같이 표준화된 전략적 절

차에 대한 안내를 기대하고 van Manen (1990)이나 Giorgi (1985)를 처음 읽게 된다면, '현상학적 환원', '체험의 본질', '경험의 의미'와 같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마주하며 당황하게 된다. 결국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철학자들의 현상학을 정리한 대표적인 책을 찾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서 보편적인 본질이 실재한다는 믿음으로 Husserl이 자신을 실증주의자(positivist)로 지칭한 사실을 확인할 때(Spiegelberg, 1982), 질적 연구에서 기술적 현상학이 (후기)실증주의적 패러다임으로 분류된 것을 발견할 때(Koch, 1995; Paley, 1997), 그리고 van Manen (1990)의 연구가 해석적인 연구에서도 기술적인 연구에서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결국 현상학을 '응용사회과학'인 관광학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문제시하며, 깊이 있는 현상학적 연구 수행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깨닫는다. 현상학을 활용하고자 할 때 연구자가 겪게 되는 방법론적 지식의 축적 과정은 이 논문의 구성 방식에 반영되었다.

이 논문은 김진용 (2021)과 이보미 (2021)를 통해 관광학의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수행된 현상학적 연구 사례를 확장적으로 보여주었다. 김진용 (2021)의 경우, 후기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한정하는 분석 도구로 Giorgi (1985)의 현상학을 활용하였다. Giorgi (1985)의 방법은 Husserl의 초월적 현상학에 중점을 두고 제안되었으며, 분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진용 (2021)은 이론가의 방법론적 절차를 자신의 연구 맥락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연구의 일관성을 높였다. 반면 이보미 (2021)의 경우, Husserl 현상학의 이해를 통해 van Manen의 제안을 유연하게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van Manen (1990)은 자신의 연구 방법을 초월적 현상학적 관점에서도 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며, 연구자의 세계관에 따라 유연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실제로 이보미 (2021)는 지향성과 본질

직관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응용 사회과학 수준에서 접근하기 위해 van Manen을 이용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농인의 여가 체험을 통해 드러나는 지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술하면서 연구 전체의 탐색 범주에 대한 일관성을 높이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연구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은 현상학적 접근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관광학에서의 적용 가치를 더욱 강조시킨다. 현상학은 관광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반성적 사고를 함양하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연구자는 연구 관점과 방법론의 적용 사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 정돈은 관광학 내부에서 생성된 고유의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을 돕는다.

지금까지 관광학에서는 연구자 관점에 따라 방법론을 단순히 이원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즉 암묵적으로 양적 방법론은 (후기)실증주의에 기초하며, 질적 방법론은 대안적인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초한다고 전제된다. 또한 전통적으로 (후기)실증주의에 따른 정량적 연구 방법의 활용이 우세하였다. 실제로 Henderson (2011)은 관광 및 여가 연구는 현실에서 유효하다면 진리가 되는 실용주의적 전통이 강하며, 후기실증주의적 방법을 실용주의적 정의에 맞춰 발전해왔음을 지적한다. Stewart and Floyd (2004)의 경우, 여가의 맥락에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에 접근하기에는 후기실증주의적 관점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Hollinshead (2006)는 Guba (1990)의 제안 중 구성주의적/해석주의적 관점에서의 탐색이 관광학 연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 관광과 여행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화와 사회적 맥락의 다양성은 변화하고 경쟁하는 실재들을 더욱 여실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학은 내부자의 시선을 강조한 연구를 통해서 소수자의 시선이 존재함을 입증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발견은 피상적이고 추상화된 환원주의적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Cohen, 1993; Graburn, 1989, Hall & Tucker, 2004). 또한 다양한 관점의 적용으로 인해 관광학의 패러다임은 다원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서양중심적, 남성중심적 관점의 지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Chambers & Buzinde, 2015).

그러나 후기실증주의의 우세를 확인한 학자들조차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의 인식론 방법론이 조용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Henderson (2011)은 여가 및 관광 경험을 고찰한 선행 연구에서 순수한 실증주의적 관점에서나 완전한 해석주의적 관점에서 수행된 것이 드물다고 평가한다. 같은 맥락에서 Samdahl (1999)은 겉으로 보기에 해석주의적 관점에서 질적 접근법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는 존재론적 그리고 인식론적 전제는 후기실증주의적 관점에 더 가깝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방법론과 인식론의 비일관성은 연구자가 방법론이나 방법론의 토대가 된 철학적이고 이론적 논의에 미성숙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Kuhn (1962)의 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혼재성은 지금 이 시기가 관광학 내부에서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다양한 가치 체계가 공존하는 단계임을 나타내는지도 모른다.

관광학의 학문적 성숙을 보다 정밀하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방향에서 현상학적 접근의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현상학이라는 방법론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철학적 전통에 따라 다원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증주의 혹은 후기실증주의적 관점에 한정되는 양적 접근과 달리, 현상학적 접근법은 다양한 차원의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응용될 수 있다. 둘째, 논지의 일관성이 높은 사례 기반 연구를 확장적으로 수행한다. 관광학에서 현상학을 적용한 연구의 대부분은 연구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찍이 제기되었다(Pernecky & Jamal, 2010).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국내 최신 연구 사례(김진용, 2021; 이보미, 2021)에서 그 움직임을 확인하였다. 즉 연구자의 관점과 방법의 활용 방식, 그리고 서술 방식이 일관성은 질적 탐색이 명확한 초점과 분명한 시도로 수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내적 발전은 결국 여가 현상의 본질에 외부 학계의 시선을 그대로 빌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에서 깊이 있는 해석을 시작할 주요 토대를 현상학적 연구에서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글을 읽는 데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연구 패러다임, 철학적 배경, 방법론적 제안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현상학적 접근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내재된 복잡성이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해석과 활용에 대한 방대한 담론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이론가들마다 섬세하게 다른 접근 방식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자들도 현상학을 끊임없이 배우는 학습자에 지나지 않기에, 이러한 공백을 꼭 채우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였다. 관광학 연구자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배우면서 질적 연구와 현상학적 연구의 활용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 둘째, 현상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데 정형화된 절대적인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세계관과 현상학적 관점이 일치대응하는 것에 한정하여 연구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구자 스스로가 유연한 방법적 설계가 가능한 현상학적 접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관성에 대한 논의는 관광학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현상학을 세 가지 차원(패러다임, 철학적 현상학, 구체적 연구 방법)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관광현상의 본질에 대한 현상학적 탐색은 연구자의 관점, 탐색의 범주, 논문이 지향하는 일관성

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다시 이 글의 도입부로 되돌아가자. A가 두 번째 베를린 방문을 '진정한 여행 경험'으로 느꼈던 이유는 무엇인가? 독자 스스로의 연구자적 실천을 통해 답변을 찾기를 기대해본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Author's contribution**

Kim, Sohye: Writing, literature review,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 analyzing.

Lee, Hoon: Advising.

**References**

김진용 (2021). 관광소비자의 권리침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OTA를 대상으로. <관광연구논총>, 33(3), 181-210. <https://doi.org/10.21581/jts.2021.8.33.3.181>

박신화 (2012).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나타난 철학개념. <철학사상>, 46, 227-257. <https://doi.org/10.15750/chss.46.201211.008>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한길사.

이보미 (2021). 현상학적 관점에서 농인들의 여가 체험. <관광학연구>, 45(2), 77-100. <https://doi.org/10.17086/JTS.2021.45.2.77.100>

한석호, 윤지환 (2020). 관광객 자전적 기억에서 나타나는 관광경험 구조의 이해: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접근. <관광학연구>, 44(8), 33-54. <https://doi.org/10.17086/JTS.2020.44.8.33.54>

Allaby, M., & Shannon, C. (2020). "I just want to keep in touch": Adolescents' experiences with leisure-related smartphone us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51(3), 245-263. <https://doi.org/10.1080/00222216.2019.1672506>

Berger, P. L., & Luckmann, T.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Doubleday & Company, New York.

Beyer, C. (2018). How to analyze (intentional) consciousness in terms of meta-belief and temporal awareness. *Frontiers in Psychology*, 9. <https://doi.org/10.3389/fpsyg.2018.01628>

Caelli, K. (2000). The changing face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traditional and American phenomenology in nursing.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0(3), 366-377. <https://doi.org/10.1177/104973200129118507>

Caldwell, B. (1980). Positivist philosophy of science and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Issues*, 14(1), 53-76.

Carr, W., & Kemmis, S. (1986). *Becoming critical: Education, knowledge and action research*. Philadelphia: Falmer Press.

Chambers, D., & Buzinde, C. (2015). Tourism and decolonisation: Locating research and self. *Annals of Tourism Research*, 51, 1-16. <https://doi.org/10.1016/j.annals.2014.12.002>

Cleminson, A. M. (1990). Establishing an epistemological base for science teaching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notions of the nature of science and of how children learn scienc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27(5), 429-445.

Cohen, E. (1979). A phenomenology of tourist experiences. *Sociology*, 13(2), 179-201.

\_\_\_\_\_ (1993). Introduction: Investigating tourist ar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1), 1-8.

Cohen, M. Z., & Omery, A. (1994). Schools of phenomenology: Implications for research. In Morse, J. M. (Ed.). *Cri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pp. 136-156). Thousand Oaks, Sage.

Crotty, M. (1996). *Phenomenology and nursing research*. Churchill Livingstone, Melbourne.

- \_\_\_\_\_ (2003). *The foundations of social research: Meaning and perspective in the research process*. Sage Publications, London, Thousand Oaks, New Delhi.
- Dasher, K., & Brymer, E. (2019). An ecologic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n multispecies leisure and the horse-human relationship in events. *Leisure Studies*, 38(1), 394-407. <https://doi.org/10.1080/02614367.2019.1586981>
- Denzin, N. K., & Lincoln, Y. S. (Eds.). (2018).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5th ed.). Los Angeles, CA: Sage.
- Dostal, R. (2021). Gadamer's relation to Heidegger and to phenomenology. In R. Dostal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Gadamer* (Cambridge companions to philosophy, pp. 334-35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9781108907385.014>
- Fratila, E. & Berdychevsky, L. (2021). Aiming "High" in college: Phenomenological meanings of drug consumption in/as leisure through the lens of existential authenticity. *Leisure Sciences* (published online). <https://doi.org/10.1080/01490400.2021.1957728>
- Gallagher, S. (2005). *How the body shapes the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Geelan, D. R. (1997) Epistemological anarchy and the many forms of constructivism. *Science & Education*, 6, 15-28. <https://doi.org/10.1023/A:1017991331853>
- Giorgi, A. (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A phenomenologically based approach*. Harper & Row.
- \_\_\_\_\_ (1984). Towards a new paradigm for psychology. *Studies in the Social Sciences*, 23, 9-28.
- \_\_\_\_\_ (Ed.).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_\_\_\_\_ (1992). Description versus interpretation: Compet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3(2), 119-135. <https://doi.org/10.1163/156916292X00090>
- \_\_\_\_\_ (2006). Concerning variations in the applic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The Humanistic Psychologist*, 34(4), 305-319. [https://doi.org/10.1207/s15473333thp3404\\_2](https://doi.org/10.1207/s15473333thp3404_2)
- Graburn, N. H. H. (1989). Tourism: The sacred journey. In Smith, V. L. (ed.), *Hosts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2nd edi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1-36.
- Green, E., Solomon, M., & Spence, D. (2021). Poem as/and palimpsest: Hermeneutic phenomenology and/as poetic inquir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20. (published online). <https://doi.org/10.1177/16094069211053094>
- Guba, E. G. (1990). *The paradigm dialog*. Newbury Park: CA. Sage.
- \_\_\_\_\_,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 Hall, C. M., & Tucker, H. (2004). *Tourism and postcolonialism: Contested discourses, identities and representations*. London. Routledge.
- Hammond, M., Howarth, J., & Keat, R. (1991). *Understanding phenomenology*. Basil Blackwell, Oxford
- Hasan, M. N. (2016). Positivism: to what extent does it aid our understanding of the contemporary social world? *Quality & Qua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ology*, 50(1), 317-325. <https://doi.org/10.1007/s11135-014-0150-4>
- Heidegger, M. (1996). *Being and Time*. Trans. by J. Stambaugh. Albany, NY: State University

- of New York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53)
- Hein, S. F., & Austin, W. J. (2001). Empirical and hermeneutic approaches to phenomenological research in psychology: A comparison. *Psychological Methods, 6*(1), 3-17. <https://doi.org/10.1037/1082-989X.6.1.3>
- Henderson, K. A. (2011). Post-positivism and the pragmatics of leisure research. *Leisure Sciences, 33*(4), 341-346.
- Hollinshead, K. (2006). The shift to constructivism in social inquiry: Some pointers for tourism studi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1*(2), 43-58. <https://doi.org/10.1080/02508281.2006.11081261>
- Hughes, J. A., & Sharrock, W. W. (1997). *The philosophy of social research* (3rd ed.).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Ltd.
- Husserl, E. (1900/1970). *Logical investigations* (J. N. Findlay, Trans.). London, UK: Routledge and Kegan Paul. New York: Routledge.
- \_\_\_\_\_ (1913/1982). *Ideas pertaining to a pure phenomenology and to a phenomenological philosophy-first book: general introduction to pure phenomenology*. (F. Kersten, Trans.). The Hague, Netherlands: Nijhoff.
- \_\_\_\_\_ (1954/1970).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s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An introduction to phenomenological philosophy* (D. C. Evanston, Tran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Psychological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and the confrontation with Heidegger (1927-1931)* (T. Sheehan & R. Palmer, Trans.). Kluwer, Dordrecht.
- Jansen, J. (2005). On the development of Husserl's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of imagination and its use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Phenomenological Cognitive Science, 4*, 121-132. <https://doi.org/10.1007/s11097-005-0135-9>
- Jennings, G. (2001) *Tourism research*. John Wiley and Sons Australia, Milton, Queensland, Australia.
- Koch, T. (1995). Interpretive approaches in nursing research: The influence of Husserl and Heidegg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1*(5), 827-836. <https://doi.org/10.1046/j.1365-2648.1995.21050827.x>
- Kruger, D. (1988). *An introduction to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nd ed.). Cape Town, South Africa: Juta.
-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Kukla, A. (2000). *Social constructivism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New York: Routledge.
- Langdridge, D. (2007). *Phenomenologic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method*. Harlow: Pearson Prentice Hall.
- Laverty, S. M. (2003). Hermeneutic phenomenology and phenome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3*(3), 1-29. <https://doi.org/10.1177/160940690300200303>
- Mannell, R. C., & Iso-Ahola, S. E. (1987). Psychological nature of leisure and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3), 314-331. [https://doi.org/10.1016/0160-7383\(87\)90105-8](https://doi.org/10.1016/0160-7383(87)90105-8)
- Matua, G. A., & Van Der Wal, D. M. (2015). Differentiating between descriptive and interpretive phenomenological research approaches. *Nurse Researcher, 22*(6), 22-27. <https://doi.org/10.7748/nr.22.6.22.e1344>
- McCall, R. J. (1983). *Phenomenological psychology: An introduction*.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McIntosh, R. W., Goeldner, C. R., & Ritchie, J. R. B. (1995). Pleasure travel motivation. In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7th Ed.), (pp. 167-190).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 Neubauer, B., Witkop, C., & Varpio, L. (2019).

- How phenomenology can help us learn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s. *Perspectives on Medical Education*, 8(2), 90-97. <https://doi.org/10.1007/s40037-019-0509-2>
- Paley, J. (1997). Husserl, phenomenology and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8(1), 187-193. <https://doi.org/10.1046/j.1365-2648.1997.1997026187.x>.
- \_\_\_\_\_ (1998). Misinterpretive phenomenology: Heidegger, ontology and nursing resear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4), 817-824. <https://doi.org/10.1046/j.1365-2648.1998.00607.x>.
- \_\_\_\_\_ (2018).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Amedeo Giorgi's hermetic epistemology. *Nursing Philosophy*, 19(3), e12212. <https://doi.org/10.1111/nup.12212>.
- Patton, C. M. (2020). Phenomenology for the holistic nurse researcher: Underpinnings of descriptive and interpretive traditions. *Journal of Holistic Nursing*, 38(3), 278-286. <https://doi.org/10.1177/0898010119882155>
- Pernecky, T., & Jamla, T. (2010). (Hermeneutic) phenomenology in tourism stud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7(4), 1055-1075. <https://doi.org/10.1016/j.annals.2010.04.002>
- Racher, F., & Robinson, S. (2003). Are phenomenology and postpositivism strange bed-fellow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5(5), 464-481. <https://doi.org/10.1177/0193945903253909>
- Rodriguez, A., & Smith, J. (2018). Phenomenology as a healthcare research method. *Journal of Evidence Based Nursing*, 21(4), 96-98. <https://doi.org/10.1136/eb-2018-102990>
- Ryan, C. (1991). *Recreational tourism: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 Samdahl, D. M. (1999).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leisure studies. In E. J. Jackson, and T. L. Burton (Eds.), *Leisure studies: Prospec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p. 119-133). Venture Publ., State College.
- Schmitt, R. (1959). Husserl's transcendental-phenomenological reductio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20(2), 238-245. <https://doi.org/10.2307/2104360>
- Schwandt, T. A. (1994). Constructivist, interpretivist approaches to human inquiry. In N.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landscape of qualitative research: Theories and issues*(pp. 221-25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chacht, R. (1972). Husserlian and Heideggerian phenomenology. *Philosophical Studies*, 23(5), 293-314.
- Shapiro, B. (1994). *What children brings to light: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on children's learning in science*. NY: Teachers College Press.
- Shim, C., & Santos, C. (2014). Tourism, place and placelessness in the phenomenological experience of shopping malls in Seoul. *Tourism Management*, 45, 106-114. <https://doi.org/10.1016/j.tourman.2014.03.001>
- Smith, J. A., Flowers, P., & Larkin, M. (2009).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Theory, method and research*. Sage: London.
- Smith, J. K. (1983). Quantitative versus qualitative research: An attempt to clarify the issue. *Educational Researcher*, 12(3), 6-13.
- Smith, S. (1988). Defining tourism a supply-side view.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2), 179-190. [https://doi.org/10.1016/0160-7383\(88\)90081-3](https://doi.org/10.1016/0160-7383(88)90081-3)
- Spiegelberg, H. (1982).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A historical introduction* (3rd ed.). Hague: Martinus Nijhoff. <https://doi.org/10.1007/978-94-009-7491-3>
- Stanovich, K. E. (2012). *How to think straight about psychology* (10th ed.). Pearson Publisher.
- Stedman, J. M., Kostelecky, M., Spalding, T. L., & Gagné, C. (2016). Scientific realism, psy-

- chological realism, and Aristotelian-Thomistic realism. *The Journal of Mind and Behavior*, 37(3/4), 199-218.
- Stewart, W. P., & Floyd, M. F. (2004). Visualizing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4), 445-460. <https://doi.org/10.1080/00222216.2004.11950031>
- Szarycz, G. S. (2009). Some issues in tourism research phenomenology: A commentary. *Current Issues in Tourism*, 12(1), 47-58. <https://doi.org/10.1080/13683500802279949>
- Tucker, K. A., & Sundberg, M. (1988).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 London: Routledge.
- Valle, R., King, M., & Halling, S. (1989). An introduction to existential-phenomenological thought in psychology. In R. Valle & S. Hall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 in psychology* (pp. 3-16). New York: Plenum Press.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 \_\_\_\_\_ (1991). Reflectivity and the pedagogical moment: The normativity of pedagogical thinking and acting.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3, 507-536. <https://doi.org/10.1080/0022027910230602>
- \_\_\_\_\_ (1997). *Researching lived experiences: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2nd Ed.). London, UK: The Althouse Press.
- \_\_\_\_\_ (2001). Professional practice and doing phenomenology. S. Tooms (ed.). *Handbook of phenomenology and medicine* (pp. 457-474). Dordrecht: Kluwer Press.
- \_\_\_\_\_ (2017). Phenomenology in its original sens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7(6), 810-825. <https://doi.org/10.1177/1049732317699381>
- Walle, A. (1997). Quantitative versus qualitative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3), 524-536. [https://doi.org/10.1016/S0160-7383\(96\)00055-2](https://doi.org/10.1016/S0160-7383(96)00055-2)
- Wilson, E. B. (1990). *An introduction to scientific research*.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Wolf, E. (1999). *Envisioning power: Ideologies of dominance and cri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ttps://doi.org/10.1525/9780520921726>